

신명기 17:14-20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왕

왕의 자격 / 왕 중의 왕

당시 가나안 땅 주변 나라들은 모두 왕정제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의 필요성을 느끼고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왕을 세울 때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야 합니다. 인사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제 아무리 왕이라도 최고 권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네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민족이기주의, 차별주의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의 유대감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있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중의 왕으로 알고 믿고 있는 자라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왕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면 그 왕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왕이 금해야 할 것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구하기 위해 애급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군사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은 기병과 전차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군사력이 강해지면 얻어지는 것들이 많겠지만 인간 왕으로서 창조주 왕을 의뢰하지 않거나 업신여길 가능성이 생깁니다. 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유지될 정도로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강한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교만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나 이 말을 구하기 위해 애급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행동이기에 금하셨습니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말을 많이 두지 않아야 했습니다. 두번째로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에게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두어 온 나라에 우상이 들끓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기에 힘쓸 수 있도록 마음을 미혹케 하는 많은 여인은 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한 것은 은금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적당한 부는 관찰을 수 있지만 과도한 부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 여자, 부는 많아지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인 자신 위에 참되신 왕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어서 왕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금하신 것과 그 정신은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율법책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사람이 피조물임을 확실히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왕과 종의 관계로 잘 정리되어야만 이스라엘의 왕이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왕의 직분을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야할지에 대한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 마음, 부가 방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

지 못하게끔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은 오직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비로서 잘 관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11-19

아름다운 세상

생활수칙 / 우리의 할 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 한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방의 급소를 잡았다면 그 손을 자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하고 무서운 말씀같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가족이 누군가와 싸울 때 가족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소를 가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이러한 행위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인의 정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상대방 남자가 급소에 손상을 입어 자손을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적 표징을 손상시킨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 문화 가운데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남편을 구한다는 합당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의 생식기를 망가트리 상대방과 후손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더라도 그 한계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함을 요구하십니다. 공정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것, 즉, 장사나 거래를 하면서 속이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왔습니다. 손해보기 싫고 이익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중국산과 국산 깨를 섞어서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다든지, 외국에서 수입해온 소를 최소한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키워서 한우라고 속이든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산다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서는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는 세상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정직함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득을 좇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치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말렉에 대해 보복을 명하셨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은 정정당한 전투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후미에 있는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과 같이 약한 사람들을 기습하여 약탈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이 비열하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여 천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죄악된 모습을 닮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당한 행동에도 한계가 있음을,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악한 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정직한 문화와 약자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신명기 30:1-10

행복한 삶, 지금부터

저주 / 축복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으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은 자신이 피조물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잊고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불순종함으로 쫓겨나 포로로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 간 이스라엘은 언약의 저주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각기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보호 받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불순종의 결과가 이러하다는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보복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을 안내하는 말씀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음에 그 말씀이 생각나거든 돌아와 말씀에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흠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각 나라로 쫓겨 간 이스라엘을 본토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포로가 되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이끌어 내실 것이며 조상들의 땅을 다시 차지하여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돌아오게 하사’, ‘선을 행하사’, ‘번성하게 하실’ 이라는 세 개의 동사로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례가 포피를 자르는 것처럼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마음에서 제거하실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음과 완고함이 제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에는 생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멸망하여 포로가 될 것을 아시고 미리 회복의 길을 예비해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돌이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셔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불순종하여 저주를 만날 때도, 순종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도 거기에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요 인생이 됩니다. 혹시 이런 삶과 멀어져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움직인다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